

 한국농어촌공사	보 도 자 료 Press Release		농어촌  그린기치 ESG 2030
보도일시	2022. 7. 18(월) 10:00	배포일시	2022. 7. 18(월) 10:00
담당부서	환경지질처 지하수사업부	책임자	부장 전병철(061-338-5791)
		담당자	차장 고정희(061-338-5792)

농어촌공사, 지하해수로 육상양식 어가 지원

- 육상양식장 경영불안 해소...일정온도 유지하는 지하해수 개발 가능여부조사 -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매년 계절마다 반복되는 고수온과 한파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육상양식장과 종자생산 어가를 돕기 위해 15개 지구에서 지하해수 개발 적지조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육상양식장과 종자생산 어가는 주로 연안 해수를 양식장 용수로 이용하는데 계절별 해수 온도변화 폭이 커서 일정 온도 유지를 위한 에너지 비용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어왔다.

올해도 때 이른 무더위로 평년 수온보다 1.7℃가 높아지면서 예년보다 열흘 빠른 고수온 주의보가 발령됐다.

이처럼 반복되는 수온차로 인한 육상양식장과 종자생산 어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공사는 해양수산부와 함께 지하해수 이용방안을 제시해 어가 경영 안정을 돕고 있다.

지하해수는 일정한 온도(14~18℃)를 유지하고 있어 양식장 용수로 사용할 경우 용수를 데우거나 냉각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적조나 해양오염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다.

*지하해수 : 바닷물이 지하로 스며들어 담수와 섞여 미네랄과 영양염류가 풍부한 지하수로 바닷가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다.

이에 공사는 2010년부터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양식장 용수관리사업」을 시행해 육상양식장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지하해수 탐사와 시추를 통해 개발 타당성을 확인하고 이용방안을 제시해 오고 있다.

지금까지 148개 지구 716공에 대한 시추조사를 실시해 398공의 이용 방안을 제시했으며 올해도 추가로 15개 지구에서 46공을 조사할 계획이다.

노경환 환경지질처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고수온과 저수온이 반복되면서 육상양식 어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육상양식장에서 지하해수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대용량 취수지역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